



"시청하는 도승지가 여름 북창 밑에서 자는 사람만 못하다"

뜻: 아무리 높은 벼슬에서 바쁘게 일하는 것보다, 시원한 집에서 편안하게 쉬는 것이 더 행복하고 좋다는 뜻이야.

이 속담과 관련있는 말 벼슬 · 편안함 · 여유

바른 글씨 따라쓰기

중심 십자선을 기준으로 자음과 모음의 균형을 맞춰 써 보세요

1단계 보기 바른 글씨의 모양과 획을 눈으로 살펴보세요

시 청 하 는 도 승 지 가 여 름 북 창
밑 에 서 자 는 사 람 만 못 하 다

2단계 따라 쓰기 얇은 글씨를 따라 연필로 천천히 써 보세요

시 청 하 는 도 승 지 가 여 름 북 창
밑 에 서 자 는 사 람 만 못 하 다

3단계 혼자 쓰기 1·2단계를 종이로 가린 뒤, 속담을 떠올려 써 보세요

시 청 하 는 도 승 지 가 여 름 북 창
밑 에 서 자 는 사 람 만 못 하 다

다 쓴 뒤 선생님과 확인해요



웹에서 더 알아보기 스마트폰으로 QR을 비추면 바로 열려요

재미있는 속담 이야기와 퀴즈가 기다려요!

속담이 일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생생한 이야기와 해설을 웹에서 확인해 보세요.

초성 퀴즈

[사 님 하 나] [도 승 지 가] [여 름] [북 창] [밑 에 서] [자 는] [사 람 만] [못 하 다]

웹에서 보기

